

한국의 CAPD 현황, 1993

대한신장학회

조사책임 이 희 발

본 조사는 19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APD를 시행한, 전국의 48개 센터로부터 보고된 2,0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992년말 현재 환자는 1,191명이었고, 1993년중 신환은 834명으로 이중 38명이 신이식을 받고 143명이 사망 그리고 154명이 CAPD를 중단하여 1993년 말 현재 1,690명이 CAPD를 계속하고 있었다. 녹십자의공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1993년말 현재 전국의 혈액투석 환자는 6,373명, CAPD 환자는 1,962명, 총 투석 환자는 8,335명으로 CAPD 환자는 전체 투석환자의 23.5%이었다. 1993년 등록된 CAPD 환자는 추산 환자의 86.1%로 1992년의 69.4%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

신환 834명의 남녀비는 54 : 46, 연령 별 분포는 50대가 27.5%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6.0%, 30대 19.8%, 40대 16.5%순이었다. 신환의 원인질환은 당뇨병이 3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성사구체신염 23.5%, 고혈압 12.8%의 순이었다. 전체 환자 2,025명의 32%는 Swan neck 도관을, 36%가 Y형 또는 다른 분리식방법을, 94%는 double cuff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환 834명 중에서는 51.5%가 Y형을 사용하였다.

복막염의 빈도는 1환자년 당 0.7회, 도관주위 감염이 0.2회, 도관 제거가 0.1%이었다. CAPD 연결기구에 따른 복막염의 빈도차는 Swan neck도관 0.7회, 직선형도관이 0.6회였고, 1 line/1 bag이 0.7회, Y형

또는 분리형이 0.7회로 차이가 없었으나 double cuff는 0.7회인 반면 single cuff는 1회로 증가되어 있었다. 1993년 CAPD 신환중 CAPD 시작후 6개월과 12개월에 최초의 복막염을 경험할 가능성은 각각 33%와 45%이었다. 1992년에 CAPD를 시작한 543명에서 전체 환자 생존율은 1년과 2년에 각각 87.8%와 81.5%, 전체 기술 생존율은 각각 88.2%와 77.5%이었다. CAPD시작시의 연령과 당뇨는 환자 생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2년 환자생존율은 30세 미만에서 94.9%, 30-59세에서 86.3%, 60세 이상에서 68.1%이었고, 당뇨환자는 63.6%로 비당뇨환자 89.7%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 1993년에 CAPD를 중단한 환자 154명의 89.6%는 HD로 전환, 7.2%는 추적 불가, 2.6%에서는 신기능이 회복되었다. HD로 전환한 이유로는 복막염이 7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관 주위 감염 8.7%, 환자 또는 가족의 선택 4.3%, 한외여과 부전 3.6%순이었다. 사망의 원인으로는 복막염이 18.2%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다음이 심장질환 17.5%, 뇌혈관 질환 7%순으로 많았다. 1993년중 복막염의 빈도는 감소하였으나 복막염은 CAPD 중단과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더 많은 double cuff와 Y형 연결관(외국자료)의 사용이 복막염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